

- 목표: 2020 년에 Fulton 과 Laurel 지역에 미주한인교회를 개척하기
Goal: To plant a Korean American church in Fulton/Laurel area in 2020

- 선교지 Mission Field – 왜 우리 주변에 개척교회가 또 필요합니까? Why?
 - 우리는 새로운 한인교회들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1 세와 2 세,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There is a need for new Korean American church plants that serve 1st and 2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as well as their neighbors. Below are some reasons:

 -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Jesus gave us the Great Command – “And he said to him,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great and first commandment. And a second is like i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On these two commandments depend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Matt 22:37-40)

 - 또한 지상위임명령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
Jesus also gave us the Great Commission –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Matt 28:19)

 - 이러한 계명과 명령을 생각할 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In light of these commands and commission, we consider the following:

 -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살아온 이민의 경험이 새로운 교회개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The Korean American Immigrant experience calls for more new church plants:
 - 미주의 한인 교회들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민자들이 한국말과 문화를 경험할 곳을 제공하여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한인교회들은 이들에게 언제나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도 잦은 교회의 분열, 다른 교인들에 대한 실망들로 인해 곧 교회에 나오는 것을 멈추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인이민사회 안에는 교회에 잠시라도 나왔던 사람들은 많지만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롭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계속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인교회가 많이 있지만, 많은 교회가 건강하진 못합니다. 특히 교회가 오래될 수록 새로운 멤버를 잘 받아들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개척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제자화 시키는 일에 더욱 적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Korean American churches provide a distinct community where unchurched Korean

immigrants are attracted out of their need for a community that speaks their own language. However, the Korean American church has not always been successful in witnessing the authentic love of Christ toward them. Even if they receive Christ, worship and serve as Christians, the frequent church conflicts and disappointment from other Christians, many have stopped going to church. Many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ave been to the church at least for a season, but most of them do not actively attend church. The key to keeping these new Christians in the church is to have a healthy church that disciples its members in the gospel of Jesus Christ so that the authentic Christianity is practiced in our churches. Even through there seem to be many Korean-speaking churches, there is still a great need for “healthy churches” making new converts. As churches grow old, it is increasing difficult to welcome new members. A new church plant helps the church welcome new people and disciple them to be Christ-followers.

- 한인이민 가정들의 가족관계의 현실이 개척교회가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The Korean American Family Dynamics calls for more new church plants:

- 많은 이민 가정들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미국에 오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들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많은 경우 영어가 더 편하게 되고 미국 문화에 더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 안에 두 가지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게 됩니다. 종종 이러한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세대 간의 관계가 소원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세대 간 격차는 가정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Many immigrant families have children who are either born in the U.S. or grow up here from an early age.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immigrant family where two languages and cultures are present, many parent-child relationships show a pattern of miscommunication throughout the growing-up years, resulting in a disconnect between family members, which happens not only in the family but also in the church.

- 한인이민 가정의 자녀들은 한인이민교회를 통해 기독교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이 교회들은 1 세가 주류인 교회입니다. 2 세인 자녀들은 소수 그룹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어가 더 편하고 점점 한국어로 소통이 힘들어지는 자녀들은 한인교회에서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어렵게 느껴지다가, 기독교 신앙,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2 세들이 이미 한인 교회를 떠나서 “미국 교회”에 나가거나 아예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시작은 많은 경우 이민 가정 안의 세대 간의 어려움에서 출발합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이 교회의 건강을 해칩니다. 이민 1 세들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2 세들이 사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소수 그룹으로 느끼게 만들기 쉽습니다. 교회가 말로는 화목을 얘기하지만 행동으로는 분열을 조장하는 현실은 2 세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한인교회들이 이러한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척교회들이 필요합니다.

Often, Korean American children are introduced to the Christian faith in the context of a Korean American church, where the Korean-speaking, 1st generation members are the dominant group, and the English-speaking, 2nd generation children, youths, and young adults are the minority group. The 2nd generation often experience being treated like a second-class citizen. Many are misunderstood for the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and project their cultural disconnect and misgivings to their relationship to the church, to the Christian faith, and ultimately to God. Many children of the Korean immigrants have left the Korean church and many of them the Christian faith altogether. Much of it stems

from unresolved issues and generational barriers within the immigrant family. Just like healthy families strengthen their church, unhealthy families weaken the church health. Often, the social aspirations of 1st generation immigrants are expressed and pursued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es by the Korean-speaking members, and end up pushing out the other language and culture group, namely the 2nd generation, who experience the double minority status: a minority in the society as well as a minority in the church. The hypocrisy of the church becomes too obvious to the 2nd generation when the church preaches the gospel of reconciliation and practice discrimination and marginalization. And many Korean American churches suffer these broken family and church relationships. We need more new church plants that can overcome these broken relationships in the Korean American families and churches.

- 미주 한인들이 커뮤니티와 단절되어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교회 개척이 필요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The Korean American disconnect from the larger community calls for more new church plants:

- 대부분의 한인 이민자들은 자신들과 다른 이웃들에게 둘러 싸여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단절되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공동체와 사회가 필요한데, 한인 이민자들은 그것을 한인 교회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들어오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소외시키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장 큰 계명과 지상위임명령은 우리와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다른 이웃을 찾아가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제자 삼으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훈련받아 능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Many Korean immigrants live surrounded by non-Koreans. Usually, the neighbors are not like them. Christ commands us to love our neighbors as ourselves, but many of us isolate ourselves from our neighbors. Since we still need a community, we naturally find it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However, we often bring a pattern of love that excludes people who are not like us. The Great Commission and the Great Commands imply that we seek out and disciple peoples who are not necessarily, or rather usually, not like us. In fact, in pursuit of the Great Commission and the Great Commands, Christians are to be discipled and trained in loving people different from ourselves: we are to disciples many nations, i.e. ethnic people groups, and to love neighbors as ourselves, even those who are different from us.

- 교회들은 우리와 다른 이웃들을 찾아 사랑하는 일에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미주의 한인교회들은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말이 더 가슴에 와 닿는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로 예배하고 섬기는 한인교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교회들이 교인들을 점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고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양성해 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다 하여야 합니다: 내적으로 성숙하고 친밀한 동시에 외적으로 열려 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교회들이 전자에 치중하고 후자에 취약합니다. 두 가지를 균형있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며 의도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인교회들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일보다는 밖에서 지치고 힘든 이민자들을 교회 안에서 위로하는 일에 더욱 치중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민 1 세 성도들에게도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개척교회들이

필요합니다.

Churches are to be intentional in seeking out and loving neighbors different from us, and sadly, many Korean American churches produce people who love only people like themselves. Of course, we need churches that speak Korean in order to provide a viable community of faith where Korean-speaking Christians can hear the gospel and practice a meaningful faith life. At the same time, the way we conduct ourselves in the ethnic church slowly makes us more inward-focused and not outward-driven. A church surely needs both: inward maturing and intimacy as well as outward openness and outreach. However, many Korean American churches tend to major in the former and minor in the latter. It is not easy to balance the two since it requires intentionality in the way we do church, requiring certain sacrifices in our lifestyle. But out of our need to survive as immigrants, our churches often functioned like a haven for the weary immigrants rather than a living body of Christ converting and discipling the unbelieving neighbors. We need churches, in fact, many new church plants, that are being intentional in teaching and challenging the members to live a missional life, even for the Korean American, 1st generation immigrants.

- 하워드 카운티에 사는 한인들, 특히 Fulton 과 Laurel 지역을 볼 때, 새로운 교회 개척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The Korean Americans Population in Howard County and especially in Fulton and Laurel calls for more new Korean American church plants:

- 볼티모어-워싱턴 지역에는 2010 년 기준으로 약 93,000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한인 지역입니다.
According to 2010 census, there are about 93,000 Korean Americans living in Baltimore-Washington D.C. area. It is the third largest Korean American population in the U.S.
- 볼티모어 지역에는 약 35,000 명의 한인들이 사는 데, 그 중 13,166 명이 하워드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The Greater Baltimore area has at least 35,000 Korean American, most of whom live in the Howard County. (2010 census indicates 13,166 Korean Americans in Howard County.)
- 많은 1 세와 2 세 한인들은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준히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워드 카운티에 지금은 약 15,000 명이 산다고 가정한다면, 그 중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5000 명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Many Korean Americans, 1st and 2nd generations, have attended a church at least for a short time. However, as mentioned above, not many continue to attend and have an active faith life. If we assume 15,000 people in the county, less than 5,000 are estimated to attend church regularly.
- Fulton 과 Laurel 지역에서 108 번과 1 번 도로 사이에 있는 216 번 도로 주변 지역을 살펴 보면 많은 residential 동네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Laurel 에는 세 개의 한인 교회(서머나교회, 로럴한인침례교회, 헤세드한인교회), Fulton 에는 한인 교회 가 없는 실정입니다. 엘리콧시티와 콜롬비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많은 한인 기독교인들은 베델교회나 빌립보교회 같은 큰 교회나 다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나가고 있지만, 이 지역 안에도 작고 새로운 개척교회들이 필요합니다.
In Fulton and Laurel area, along Rt 216, between Rt 108 and Rt 1, which is relatively newly developed residential area in many parts, there are 3 Korean American churches in

Laurel(Smyrna Church of Washington, Laurel Korean Baptist Church, Hased Korean Church) and none in Fulton, significantly less than Ellicott City/Columbia area. Many Korean American in that area choose to go to larger churches such as Bethel and Philippi or smaller churches in other towns, but there are still needs for smaller and newer Korean American church plants in the Fulton and Laurel area.

- 비전과 철학 Vision and Philosophy – 무엇을 하는 교회입니까? What?

- 우리는 고백적이고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PCA 교단의 장로교회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언약적이고 가정 중심적인 사역을 통해 1 세와 2 세, 그리고 한인과 이웃들의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We want to plant a confessional and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within the PCA denomination. It will take a covenantal and family-oriented approach across the language and culture barriers between 1st and 2nd generations of Korean Americans as well as between Korean immigrants and their neighbors.

- 우리는 한국어를 쓰는 이민자들을 섬기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지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려 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영어를 쓰는 2 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문화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그 문화를 핑계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화를 사용하여 다른 문화와 언어권에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복음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We seek to plant a church that can serve the Korean-speaking immigrants, but we will be intentional in reaching out across the language and cultural divides to others, starting with the English-speaking 2nd generation. We seek to be authentic to our culture and not consider it an excuse to isolate ourselves from other cultures but rather use it to reach those from other languages and cultures. This is impossible humanly-speaking, but it will force us to trust in the power of the gospel of Christ, which can overcome those barriers.

- 이러한 목표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복음의 동기로 순종하는 것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와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복음의 능력을 좇아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This goal will necessitate a Christ-centered preaching and an actual gospel obedience to the law of God to love our neighbors. Without this conscious effort to drink deeply from the gospel, it would be impossible to love the other people groups found in our neighborhood. Conversely, with this intentional reliance on the gospel power that makes us Christ-dependent and not self-dependent, it would be more than possible to cross the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to love our neighbors.

- 이러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적 요소는 언약적인 가정을 이야기하고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민 가정의 독특한 점은 본질적으로 그 안에 두 가지 언어와 문화가 있는 것인데, 이 가정이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귀중한 훈련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혈연의 관계에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맺으신 언약이 우리를 이미 묶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교제하는 일을 가정 안에서 씨름하고 노력할 수록 우리는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 있는 이웃에게 나아가는 일에 더욱 힘을 얻고 훈련을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The key vehicle to realize this transformation of the church members is the recognition of and faithfulness to the covenant families.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an immigrant family, having the inherent bilingual and bicultural dynamic will teach us how to reach across the linguistic and cultural barriers in our community settings. Trusting in the foundation of assurance in our unity as the covenant family of God more than our blood relations among the family members, the more we struggle and learn how to converse and interact and share the love of God in the family, between a father and a son, a mother and a daughter, the more empowered, equipped and emboldened we will be to reach those with different language and culture.

- 이러한 언약적인 가정 중심의 교회 사역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차이를 극복하는 훈련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그러한 일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신실함이 우리가 서로와 맺는 가정과 교회에서의 언약의 힘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그러한 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다른 이웃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This covenantal family-oriented approach will be implemented in the way we worship and serve in the church. The church on Sundays will be an active cross-cultural training ground, founded upon the rock-solid covenantal love of Christ. The church members will experience the power of God's covenant with us in Christ in the covenants that they make on the family and church levels. Only God's faithfulness to his covenant promises in Christ can validate and empower those family and church covenants and provide the assurance and challenge necessary for our cross-cultural reconciliation with neighbors who are different from us.

- 우리는 장로교회 정치를 성경적인 교회 리더십의 모델로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강도장로(목사)들과 치리장로(장로)들이 여러 명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다스림을 받고 또한 교회를 다스리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정치의 형태만으로 교회의 건강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순종이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패턴으로서의 장로교회의 모습을 따르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뼈대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그 운영의 성격상 리더들이 서로를 향해 겸손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존하여 결정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도록 제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통치는 당회 안에 있는 강도장로와 치리장로들이 참된 복수의 리더십을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발휘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패턴은 그리스도의 은사가 각각의 성도들에게 주어져 사용되는 것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장로들의 당회가 집사들의 집사회에 정당한 힘을 실어 주고 신뢰하며 임무를 나눌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We will follow the Presbyterian form of church government which is the biblical pattern of church leadership, where the plurality of teaching and ruling elders obey the rule of Christ through his Word. The mere form of government will not guarantee the health of the church. True faith and obedience of the members to the lordship of Christ do. But following the biblical pattern of Presbyterian government, not just in its form but also in its practice, will lay a solid infrastructure for humble and loving trust to develop between the leaders due to the built-in tendency of the system to look to the Word of Christ, not any single man, for the rule of the church. The rule of Christ through the Holy Spirit speaking through his Word will result in true plurality of leadership among teaching and ruling elders in the Session and in distribution and use of Christ's gifts expressed by delegation of power and accountability from the Session to the Diaconate and vice

versa.

- 장로교회의 중요한 요소는 교회들 간의 유기적 연결과 서로 책임을 지고 순종하는 관계의 형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관계는 교단에 소속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보편적인 무형교회가 유일한 교회라고 믿으며 이 교회에 한 지교회로 속한다는 것은 침례교회나 회중교회들이 서로 맺는 협력적인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각 지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제재를 받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 지교회가 다른 지체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막고 우리와 다른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일을 도우며, 또한 교회의 순결을 지켜줍니다. 건강한 교단에 속하는 것은 작은 교회로 하여금 교육과 선교의 풍성한 자원을 지원 받게 해 주며 다른 교회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고 지역사회에서 힘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동시에 그 특정 교회가 소명으로 받은 특정 사역에 자유롭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우리가 개척하려는 교회의 특성은 이민 1 세와 2 세의 화목과 우리 주변의 다른 이웃들에게 선교하는 일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교회개척 목사의 현재 소속교단과 그 교단의 신앙고백을 살펴 볼 때 이 교회가 자연스럽게 소속을 추구하는 교단은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PCA)) 입니다.

An important implication of Presbyterianism is the pursuit of connectionalism and accountability through the denominational membership. We will not act as if our church is the only church of Christ on earth but submit to the larger body of the Church, expressed through the accountability system of a Presbyterian denomination. Not a non-binding, Baptist or Congregational association of the churches but a binding membership and accountability in a presbytery and a denominational assembly will safeguard the direction of the church from isolationism which is so hurtful to the Body of Christ, especially in cross-cultural ministry efforts or from an unchecked corruption of a church leader or a rogue congregation disconnected from the rest of the larger Church. This belonging to the larger body will enable the small church plant to tap into a great pool of resources for education and mission, mutual fellowship and cooperative community service and free up its own resources in specific areas of ministry the church is tasked with, in our case the cross-cultural reconciliation between generations of Korean American Christians and outreach toward our community neighbors. The natural choice of the denomination, given the church planter's membership and subscription to its confessional standards, would be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 교회 개척목사 The Church Planting Pastor

- 김동우 목사는 크리스천이며 PCA 교단에 소속된 강도장로이고, 문화와 언어적으로 1.5 세에 가까운 한인이민자입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특히 미주 한인 사회 안에 건강하고 신앙고백적이며 언약적이고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장로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Pastor Dong Woo Kim a Christian, a teaching elder in the PCA,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1.5 generation Korean American immigrant, who yearns and longs for the birth and growth of healthy, confessional, covenantal and Reformed Presbyterian churches especially among Korean Americans. He longs for it because he sincerely believes that that is the most biblical church taught us in the Bible.

- 교회 개척을 위해 필요한 자원 Resource Needs for the Church Planting

- 이러한 개척교회의 비전을 이해하는 우리 뱀엘교회의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We need prayer from the people in Bethel who understand the vision for such a church plant.

- 헌신된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We need sacrificial financial support.
 - 개척교회를 함께 시작할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We need church members who will start the church plant together.
 - 다른 개척교회들 및 교단, 노회와 연결되고 배워야 합니다.
We need to get connected with other church plants and the presbytery and learn from them.
- 앞으로의 진행 계획 Plan to prepare for the Church Plant
 - 11/10 오후 3시 개척교회 비전 설명회 Info Session for the Church Plant at 3pm, 11/10
 - 11/17 오후 6시반부터 매 주일 또는 토요일 저녁 개척교회 준비 모임
Weekly Sunday or Saturday Evening Prep Meetings starting at 6:30pm, 11/17
 - 1월 초(1/5?) 주일 예배 중 파송식 Send-off Ceremony in early January Sunday service(1/5?)
 - 추후 노회의 허락 하에 설립예배 Launch Service later with the approval of the Presbytery
 - 김동우 목사 연락처 Contact Info for Pastor Dong Woo Kim:
 - 이메일 Email: dongwoo17@gmail.com
 - 전화 Phone: 267-626-3989

후원 및 참여 자원서 Support & Participation Volunteer Form

이름 Name: _____

전화 Phone: _____

이메일 Email: _____

주소 Address: _____

저는 로럴/풀턴 지역에 한인 1 세, 2 세, 그리고 이웃이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장로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동참하고 싶습니다.

I want to support and participate in planting a Presbyterian church in Laurel/Fulton where 1st and 2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and their neighbors can worship and serve God together.

- () - 교회 개척에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I will participate in prayer for the church plan
 - () 기도 편지를 (이메일 / 편지)로 알려 주세요.
Please send me the information/prayer letter through (email / mail) later.

- () - 재정으로 후원하겠습니다. 후원 방법을 추후에 (이메일 / 편지)로 알려 주세요.
I will support financially. Please inform me how through (email / mail) later.

- () - 개척되는 교회에 대해 좀더 알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know more about the church plant effort
 - () - 11/17 주일 오후 6 시반 교회개척 모임 때 참석하고 싶습니다.
I plan to come to the next preparation meeting on 11/17 at 6:30pm
 - () - 개척목사님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세요.
I want to meet the planting pastor and talk more in person. Please contact me.

위 내용을 적어서 준비된 박스에 넣어 주시거나 나중에 이메일로 같은 내용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You can fill out the above and drop it in the box or email me the similar information later.

김동우 목사 연락처 Contact Info for Pastor Dong Woo Kim:

이메일 Email: dongwoo17@gmail.com; 전화 Phone: 267-626-3989